

방재시험 연구원에 바란다

congratulation

01 _ 김동호 방재분야 선두기관으로서 등대 역할 해주길

02 _ 김태호 세계적인 방재시험연구원으로 성장

03 _ 민병렬 국내·외 방재연구 및 시험기관의 허브로 성장하길

04 _ 박영선 국내 선박용품 수출에 이바지

05 _ 박재일 제품성능시험 분야에의 역할 기대

06 _ 서형태 국제적인 건축·방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를

07 _ 이현영 국가 재난관리와 소방안전에 이바지

08 _ 최기환 스무 살의 푸른 청년답게

09 _ 최진 방재시험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이상 가나다순)

01 | 김동호 _ 기술표준원 기술서기관



방재분야 선두기관으로서 등대 역할 해주길

방재분야의 전문시험연구기관으로 성장한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방재시험연구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어 소화기 등 소방자재의 시험검사, 선박용 자재의 형식승인, 건설공사 자재의 방내화시험, 음향·단열시험 등 방내화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방재분야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화재안전분야 기술위원회(TC 92)의 국내 간사기관을 맡고 있으면서 국제표준화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여, 국내 화재안전기준을 국제규격에 반영해 나가고 국제규격의 국내 도입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NIST(국립표준기술원)와 목구조 내화시험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인 연구협력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표준화와 기술평가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은 방재시험연구원과 같은 전문 시험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재시험연구원을 알게 되어 지난 10여 년간 함께 일하면서 방재시험연구원의 성장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20세기가 토지, 노동, 자본 등에 의한 자본집약적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기술, 정보, 지식 등 기술과 지식이 위주가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세계가 하나의 표준으로 통용되는 Global Standard 시대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소비자 인식의 제고로 안전·보건·환경분야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1위이며 무역규모도 5,000억 달러가 넘는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화재안전과 같은 방재분야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이 조성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 화재안전분야의 전문 시험연구기관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그간의 연구개발과 축적된 노하우와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방재분야의 표준화 연구개발업무, 산·학·연 기술개발 및 협력업무, 방재인력양성 등 방재분야에서 선두연구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시험연구원에 바란다

02 | 김태호 _ 금성방재 대표이사,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세계적인 방재시험연구원으로 성장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한국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홍세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구원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발전이 있기까지는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들이 모여 이루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 관련 제품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국가 방재기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방재시험연구원은 2004년 기준으로 소방용 기계, 기구 제조업이 시장규모 8,358억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 산업 분야는 국내 시장에 만족해서인지 세계 시장의 진출 실적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소방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국내 소방시장의 저가 가격 경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블루 오션(Blue Ocean)을 찾는 노력의 과정에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화재 사고를 접하면서 “좀 더 빨리 화재의 발생을 알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게 연구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는 한국의 방재시험연구원이 아닌 세계적인 방재시험연구원으로 거듭나서, 세계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재시험연구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3 | 민병렬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자재인정센터장

국내·외 방재연구 및 시험기관의 허브로 성장하길



지난 20여 년간 방재시험연구원은 불모지와 같던 우리나라 방재 및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는 방재 및 건축물의 화재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고 시험시설도 미흡하여, 대부분의 연구 및 시험을 외국의 자료와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건설부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5년에 '건축물의 내화구조 지정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1986년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방재시험연구원을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여 건축물의 화재관련 연구와 건설자재에 대한 내화구조시험을 포함한 각종 화재시험을 담당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안전 및 내화구조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재시험연구원은 규모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함으로써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산·학·연 협동 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 내화구조, 소방안전과 관련된 자료가 미흡하였을 때 방재용어사전 및 KPFA 화재안전기준 등을 편찬하여 관련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외국 자료를 번역 소개함으로써 국내 화재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1989년 이래 화재안전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전문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근래에는 연간 1,000여 명 이상이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화재안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교육을 위하여 실습실과 중규모 및 소규모 강의실을 갖춘 교육관을 건립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높은 화재안전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간 방재연구 및 시험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이 세계적인 방재시험 기관으로 발전함에 있어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시험장비의 현대화, 시험분야의 확대 및 국가 화재안전규격 및 기준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방재시험연구원이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국내·외 방재연구 및 시험기관의 허브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시험연구원에 바란다

04 | 박영선 _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당관



국내 선박용품 수출에 이바지

오는 4월로 개원 20주년을 맞는 방재시험연구원은 1986년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부설기관으로 탄생하여 설립한 지 불과 20년 만에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공인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선박은 발화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그 선박에서 탈출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이러한 선박화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박방화구조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선박에 설치될 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시험을 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이 생기기 전 해당 제조업체는 부득이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의 공인된 시험기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방재시험연구원이 설립되었고, 해양수산부는 이 연구원을 국가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7개 선급기관 및 미국 해안경비대(USCG)의 인정시험기관으로도 지정받았습니다.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모든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요즘, 인정시험기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선박에 국내에서 제작한 설비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그 선박이 소속된 선급의 인정이 필수적이기에, 방재시험연구원이 해외의 공인된 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쾌거는 국내 선박용품 제조업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굳이 해당 국가의 시험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간단히 시험을 받아 해당 외국선박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재시험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선박용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1988년 해양수산부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 용역사업의 일환으로서 선박용 소화기의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5년 11월에 용역발주 감독관 자격으로 연구원을 방문하여 개발된 소화기의 시험과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비록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꼭 있어야 할 조직이 방재시험연구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간 20년의 경험을 살려 향후 시험품목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한편, 품질관리를 통한 공공성을 더욱 높여 세계적인 공인기관으로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05 | 박재일 _ 한국표준협회 KS인증본부 건설화학팀장



제품 성능 시험 분야에의 역할 기대

고대사회는 농경지 문화 중심으로 촌락을 구성하여 생활하다 보니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경작지로 형성되어 이웃과의 여유가 있는, 주거 환경이 쾌적한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상·공업을 중심으로 고도의 성장과 대도시로 변화하고 집단생활을 추구하므로 개인적인 공간 확보 필요성이 대두하여 초고층건물을 선호하는 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필자가 어린 시절, 겨울에 쇠죽을 끓이다 불붙은 부지깥이로 초가를 태우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데, 그때의 피해는 초가 한채로 끝났지만 얼마 전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처럼 요즘은 불이 났다하면 대형화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화재도 갈수록 대형화 추세이고 인명 및 재산 피해도 늘어나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상황에서 방재시험연구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향후 방재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및 국가방재기술 향상과 방화제품, KS표시인증제품 신뢰성을 확인해주는 방재시험연구원의 업무야말로 더욱 더 서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라 생각합니다.

방재시험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에 근무할 당시 “방화관련 KS규격 선진화연구”용역 사업이었고 2001년 3월에 KS표시인증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정심사기관으로 지정되고부터 방재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KS표시인증심사는 신청품목이 다양해서 분야별로 전문적인 고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심사시 신청제품의 특성 및 기능을 파악하고 양질의 KS제품을 생산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방재시험연구원은 KS F 3117(문 세트)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방재 및 단열성능시험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KS뿐만 아니라 ISO, JIS, UL, ASTM 등 국내외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KS인증심사원과 타 지정심사기관 심사원들이 인증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2004년 방재시험연구원을 방문하여 제품 시험하는 현장을 실습하였는데, 시험설비 및 기능을 보고 모두들 방재분야에서 최고의 시험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구조는 IT산업의 발달로 더욱 더 폐쇄적이고 고층건물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경향으로 움직임에 따라, 각종 건축자재는 불연자재 기능을 갖추어야 되고 제품성능 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방재시험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리라 여겨집니다.

시험연구원에 바란다

06 | 서형태 _ (주)KCC 품질경영실 이사

국제적인 건축·방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를



1986년 방재시험소로 개소한 이래 20여 년간 방재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방재기술 향상에 전력으로 기여해 온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성인의 위치에 올라선 연구원이 지금까지의 연구와 기술의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적인 건축·방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연구원에 바라는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원은 세계선급기관 및 USCG, RMRS, CE 등 다수의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에 부합하며 국제화 시대의 빠른 기술 변화 및 발전에 맞추어 산업체들이 국제 규격에 맞는 제품 개발과 인증 업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표준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도입 등을 통하여 해외 시험·인증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해외진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방재시험 연구기관으로서 다수의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민원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험연구 분야에서도 해외 우수 기관의 시장개방이 예상되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관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원인의 서비스 강화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의 확대를 위해 시험장비 및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사 또는 네트워크 구축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때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이 방화제품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인 “FILK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자율의 인증제도인 FILK 인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위상이 보다 높아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소비자층에 인증제도에 대한 홍보 및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 최고의 방재기술을 확보하여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이 국제적인 전문 방재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07 | 이현영 _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장 소방준감



국가 재난관리와 소방안전에 이바지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86년 방재시험소로 출범하여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소방·방재 연구분야에 한 획을 긋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온 연구원의 헌신적인 노고는 높이 평가됩니다.

특히, 2005년 제43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민간 방재기관으로서 Safe Korea 구현에 앞장서 온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영예의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도 연구원이 축적한 방재지식과 기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수준이 국가와 사회 경쟁력의 원천이며, 종합과학인 소방·방재분야의 위험관리연구는 관련업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방재 인프라입니다.

경제와 산업부문에서 고속 성장가도를 달려온 우리 사회는 수많은 대형재난사고로 고귀한 인명손실의 충격과 아픔을 경험해왔으며, 현대사회는 선·후진국이 예외없이 재난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최근 국제사회의 아젠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규모·고층화된 건축물의 공간안전관리에서 기상관측과 예·경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력이 뒷받침된 과학적 안전관리가 소방·방재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에 선진 소방·방재기술 본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가소방방재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방재시험연구원에 거는 기대와 역할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방재시험연구원이 선진 유수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 재난관리와 소방안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험연구원에 바란다

08 | 최기환 _ 소방방재신문 발행인



스무 살의 푸른 청년답게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소방방재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고 보험 산업의 과학화와 국가 방재기술 선진화를 위해 공헌해 온 방재시험연구원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홍세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 소방언론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스무 살은 성인으로 인정받는 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방재시험연구원이 소방방재기술의 시금석으로서 보다 안전한 국민생활 향상을 추구하며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밝혀줄 자양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환경은 인구 밀집화와 고도의 산업경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을 낳고 이로 인한 각종 천재지변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 갈등과 분쟁으로 테러 및 각종 재난들이 삶을 위협하고 있어 안전한 생활문화는 보편적인 생활의 패러다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풍수해 보험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정량적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방재시험연구원은 희망과 비전을 가득 담은 순수의 푸른 청년으로서 상생의 원리에 따라 소방방재산업의 공동이익을 먼저 바라보며 국내 소방방재 제품의 세계 표준화 및 우수 제품 개발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이 우수제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게 되었을 때 방재시험연구원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며, 명실상부한 국제공인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시험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내 소방방재산업을 선도하는 선구자라는 소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국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각종 연구용역 및 교육 등을 실시해 방재기술의 질적 향상과 선진화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함이 가득하고 결실이 풍성히 넘치는 국제공인기관으로서 비전과 꿈을 성취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9 | 최진 _ 한국화재·소방학회장



방 재 시 험 연 구 원 의 발 전 을 위 하 여

방재시험연구원의 개원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람부는 1986년 4월 11일 개소식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방설비의 감지기, 스프링클러의 헤드 등에 대한 10년 경년시험, 방내화시험, 중소기업청 등의 대책과제연구, 선박용품 형식승인시험, 일본건재시험센터와의 기술제휴, 각종 수탁시험 등 수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임직원에게 방재인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화재소방학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보냅니다.

20년 전 방재시험소는 타 분야에 비하여 일찍 탄생하였습니다. 그 후 자동차연구소, 국립방재연구소 설립 등 많은 갈림길의 변화가 있었습디만, 그때마다 발전보다는 내실을 기하여야 된다는 방침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건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국가에서는 업무 위주가 아니라 부처별 이기주의에 빠져 시험연구원의 업무와 유사한 시험장치 등을 중복 투자하여 발전시키고 있어, 연구원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상황 변화가 결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방재인 대부분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재시험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첫째, 기능적으로 미국의 UL시험기관과 같이 인증기관으로 성장하고, NFPA와 같은 기술기준의 연구를 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화보법상의 사회 환원적 차원의 홍보는 대중적 홍보보다 전문 연구내용의 발표와 학술대회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기술기준에 의한 설계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 PBD(Performance Based Design)에 의한 맞춤형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이 학회와 방재시험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셋째,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기관기계보험 등 특수보험에 대하여 방재시험연구원 중심의 종합방재 연구를 통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재시험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안정적 재정 자립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회원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